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 복지 교육매거진

www.kenneagram.com

월간 나눔과 힐링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40호
제 40 호
2016년 8월 25일~2016년 9월 24일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

blog.naver.com/kenneagram

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 · 복지 · 교육 매거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www.kenneagram.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TEL. 02) 3446-3165 | FAX. 02)515-6784 | Email. help@kenneagram.com

C · O · N · T · E · N · T · S

- **시를 통한 힐링** 03
  나를 위한 나 – 원성 스님
- **책 읽어주는 상담가** 05
  박현경 전임교수
  〈미움받을 용기〉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07
  4.5 심화단계
  〈여기 그리고 지금〉
- **에니어그램과 성장프로그램** 09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지금 이 순간에 살기 – 공격형〉
- **에니어그램 북카페** 11
  신성한 사고의 에니어그램
  〈9번 유형〉
- **에니어그램과 웰빙** 13
  한국형에니어그램 4기 전문강사 이후경
  〈싱글족의 갈등 극복〉
-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세상** 15
  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돈의 9가지 영역 : 여정으로서의 돈〉 중편
- **에니어그램과 영화** 17
  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여행
  〈어린왕자〉 3편
- **에니어그램과 여행** 19
  울긋불긋 도심속에서 즐기는 도심의 가을정취
- **에니어맛지도** 21
  추석 골칫거리 '명절 음식'
- **책 · 교육도구 소개** 23
  검사도구 및 교육도구 소개
- **문화소식** 25
  연극, 영화, 콘서트 등 이달의 문화소식
- **연구소 소식 및 회원동정** 27
  연구소&센터소식, 회원 및 전문강사 동향
- **연구소 소식 및 회원동정** 29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9월 교육일정

나를 위한 나

원성 스님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을 때 나는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바탕 웃음을 지을 수 있게

감정에 억눌려 혼란스러울 때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고요한 시간이 머물 수 있게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나는 시를 써봅니다.
자기의 생각을 되찾을 수 있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나는 참선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 있게

내 밖에서 내 안을 침범할 때 내 안에서 나의 밖을 수용하는
나를 위한 나의 정화입니다.

책 읽어주는 상담가

미움받을 용기

글 박현경 전임교수

문제는 과거도 환경도 아닌 너 자신에게 있다. 아들러의 목적론

2014년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미움받을 용기'는 시작을 하면서 쉽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던 이야기이고 어려운 심리학 용어를 쓰지 않는 점과 인생은 단순하라는 지론 때문에 책은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주 쉬운 책입니다.

이 책은 청년이 철학자를 찾아가서 5일 동안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배우는 과정을 대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러의 심리학을 조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과 프로이드는 원인론을 주장한 심리학자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트라우마가 바로 원인론이죠.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 어두운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내가 어둡고 습하고 삐뚤어졌다는 말을 우리는 흔하게 하고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가 됩니다.

이 원인론은 과거의 엉킨 기억을 풀어내거나 해소하거나 잊게 하거나 등의 치료를 하면 밝은 현재의 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든다! 이 말이 참 그럴 싸 합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론으로는 우리의 삶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렵게 사는 것을 넘어서 나쁜 유혹에 쉽게 빠져서 소년원도 갔다 오고 조직폭력배가 되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자라온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이나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란 사람이 흉악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100% 반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론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다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목적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그 개인 그리고 현재에 있다고 말합니다. 방에서 나오기 싫은 것이 우선이고 그 방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따를 이야기하고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즉 방에서 나오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과거가 불우하다고 해서 현재의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라면서 개인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하기 힘들지만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다는 개인적인 관점 즉 개인의 주관성을 무척 강조합니다.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 내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는 참고만 할 때 사용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결정하지 말고 현재는 현재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책의 화자인 청년이 제 이상으로 따져줍니다. 이렇게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묻고 답하면서 하나 씩 하나 씩 스펀지에 잉크가 스미듯 스며듭니다.

이 책은 이런 상식에서 어긋난 또는 우리의 사고관에 반하는 안티테제를 던지면서 흥분을 하게 만드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차분한 어조로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열등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이 열등 컴플렉스는 남과 비교할 때 발생합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남보다 못생겨서 남보다 공부를 못해서 등등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자 문제입니다.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더라도 그걸 크게 의식 하지 않으면 또는데 우리는 과도하게 의식하죠.

열등 컴플렉스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지 ~~, 내가 누구랑 잘 아는데 말이지라는 우월 컴플렉스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자랑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자랑 속에서 남들이 자길 우러러보길 바라는 시선을 원합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것은 나뿐이듯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이고 인간관계의 고민도 개인이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엇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고 하루종일 울고 불고 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면에서 이들러의 개인심리학은 과거나 미래 같은 흐릿한 시간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책은 점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밤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과거나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또는 변할 수 없는 것은 깔끔하게 생각을 접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나의 과제, 타인의 과제라고 합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인간관계를 무척 중요시 여겼고 여기서 많은 고민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악플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상처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타인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포함한 10명의 모임이 있으면 여기서 1,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를 싫고 좋아함은 내 과제가 아닌 타인의 과제이고 그건 내가 변화 시킬 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신경 끄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아들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치료해야 할 존재가 아닌 그 존재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아주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인정욕구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좀 더 높은 계급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들러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정욕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는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체벌과 다른 길들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진지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아들러

이 책의 모든 주장을 공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드는 부분과 이해는 가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과 고통은 이 책을 읽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당장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말도 하죠. 약장사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거짓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도 같은 말이니까요. 여러가지 주장이 저를 흔들어 놓네요. 왜냐하면 모든 주장들이 우리 특히 상명하복이 강한 수직적이고 치열한 경쟁만이 삶이라고 말하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사고의 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으로 제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삶의 방향타를 1도 이상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충격을 많이 느낀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심리학은 프로이드도 융도 아닌 아들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층 에니어그램 의식수준

4.5 심화단계 :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유형의 의식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 심리적 평화를 추구한다.

일 시 2016년 8월 19(금) ~ 21일(일) / 2박 3일

한국형에니어그램 심화교육
'여기 그리고 지금' 을 체험하면서

한국형에니어그램의 토착화와 한국형에니어그램 정착, 한국형에니어그램 체계적 교육, 한국형에니어그램 일반강사 및 전문강사 양성, 세계적 에니어그램 지혜 공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는 2016년 08월 19-21일(2박 3일) 전국에서 오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형에니어그램를 통한 '여기 그리고 지금'를 체험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전문강사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인 심화교육은 '심층 에니어그램 의식수준'이라는 주제와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부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금 여기에서 각 유형의 본질적인 신성한 사고에 대한 접근, 기본유형의 자아집착의 원인을 극복하는 방안, 기본유형의 형성과 발달: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초기경험, 의식수준의 성장의 접근, 유형별 심화된 체험을 통한 진정한 자기발견, 패널의 진실한 경험과 모두 나누기, 유형별 노래 명상 등의 통해 참여자들은 '여기 그리고 지금'을 체험하였습니다.

www.kenneagram.com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영혼의 힘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윤운성 역, 2015) 中 발췌

공격형 3번, 7번, 8번들은 감정 중심을 억압한다. 이것은 이들이 감정이 없다거 나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자신을 잘 표현하기는 하지만 감정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감정 을 무시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들 자신을 위한 배후의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위해 의도적인 노 력을 많이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들은 인간관계와 삶의 감정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의 활 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유형들은 어린 시절에 감정 중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연결을 맺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직접적인 개인적 질문을 피함으로써 이러한 결핍을 포장하려 한다. 이들은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들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 람으로부터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 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공격형이라고 해서 이들이 물리적으로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 서의 공격은 사람이나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말한다. 삶에 있어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감정과 인간관계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 을 강요하며 삶에서 성취, 통제, 동기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지배욕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방해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적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표현하면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하려고 하거나 유머로 상황을 적당히 넘기기도 한다. 이 유형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보 호막을 치고 껄끄러운 관계를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자주 유머를 사용 한다. 또한 이들은 나중에 "왜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내게 말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식으로 반응함으로써 감정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 한 책임감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다.

3번, 7번, 8번들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려 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계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3번들은 다음 프로젝트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춘다. 7번들의 관심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음 활동에 있다. 8번들은 다음 번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한다.

강점

- 공격형의 유형들은 감정 중심의 섬세함에서 비롯되는 감정적인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 이들 주변의 삶은 무료하지 않다. 이들은 어디를 가나 많은 공헌을 한다.
-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삶 자체가 너무 느리 며 그러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대개 자신을 잘 표현하며 내면적으로는 친밀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 삶의 현실적인 면을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사고 중심과 행동 중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 하는 힘이 있다.
-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시간, 돈, 자원이 필요할지를 비교적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여유를 둠으로써 계획보다 적은 예산과 시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
- 공격형인 사람들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공격에 대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 무시해 넘길 수 있다. 왜냐하면 별로 발달되지 않은 감정 중심은 그들의 반응을 받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과거에 매달리 는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사과를 받아내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 요한 일이 많이 있다. 앞으로 나가자!"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 이들은 긍정적이다. 항상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날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활력을 전해준다.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

3번, 7번, 8번들이 자신의 장점과 영혼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감정 중심을 개발해야 한다.

- 이들은 삶의 속도를 줄일 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감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안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감정의 언어를 개발하고 삶의 감정적 면에 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공격형들은 감정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한다. 이들 주변 사람들은 공격형들이 감정적이지 않으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내면에 서는 두려움에서 기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느 끼는지 알기를 원하며 알아야 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 시킬 수 있다.

3번, 7번, 8번들이 치유되어 완전하고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친밀감에서 맺어지는 우정과 가족관계의 안정함 속에서 살아야한다.

신성한 사고의 에니어그램

9번 유형 : 신성한 사랑

비록 현실을 통제 관리하는 법칙은 객관적이지만, 이러한 우주적인 법칙이 필연적으로 유기적 생명체와 생명 그 자체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냉담하지 않다는 인식은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목적을 수행한다. 마음의 언어 기제가 붕괴되자마자, 마음의 자연스런 조건인 사랑이 등장한다. 사랑은 인간이 창조를 생각하는 순간 시작하고, "신이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이런 점을 다소 느끼고, 동물은 이런 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인간만이 모든 것이 신으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의 측면 : 신성한 사고의 에니어그램(윤운성 역, 2014) 中 발췌

각각의 신성한 사고는 객관적인 현실이 자신을 우리의 경험에 제시하는 어떤 일정한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 여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우리의 정신 적 여과기를 통해서 보이는 주관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은 사정이 정말로 어떤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전체를 취할 수 없고, 그것의 어떤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현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의 일부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방식으로 현실을 탐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무시해야 한다.

에니어그램 시스템의 관점은 양상과 차원이 발생한 세계의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세계의 견해에서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2가지 교수법 경로 사이의 연결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그것들 은 현실을 바라보는 상이한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성한 사 고는 1개 상황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머지 하나 없이, 하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어떤 시기에 그것들을 하나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에니어그램은 현실이 9가지의 사고들로 구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지도이고, 9가지 중에서 1가지의 상실은 어떤 특정한 자아 유형으로 유도한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아가 9가지 유형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

진실의 심장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일부 감각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신성한 사고는 신성한 사랑을 확립하지 않고는 확립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에니어그램 유형의 핵심은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의 가장 중요 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은 에니어그램의 모든 다른 요소들 중에서 핵심으로, 동시에 신성한 사고와 에니어그램 유형을 대변하면서, 발산하거나 혹은 분화하고 있다.

신성한 사랑은 에니어그램의 맨 윗부분의 3가지 사고의 핵심에 있다. 이러한 3가지 사고는 우주의 진실, 살아있는 우주, 혹은 우주적인 존재의 고유한 특성에 관계된다. 에니어그램 8, 9, 1번 유형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우주적인 현실이 무엇인가, 그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 자체의 존재, 진리 및 경험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신성한 진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진리의 존재와 같은 것이다. 신성한 완전은 이 런 신체가 그 기능을 항상 완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생성되게 하는 지능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한 사랑은 진리의 마음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진리라는 어휘는 가장 포괄적인 진리, 즉 존재하 는 모든 것의 하나인 총체의 전부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의 진리, 신성한 진리는 물론, 어떤 정신적 탐색 및 어떤 정신적 전통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를 말한다.

현실에 순응하기

여기서 특정 반응은 사랑스럽고, 이런 이유로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망상을 통 하여 여과된 불신의 표현이다.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자체의 진실 한 현실 및 실체의 현실에 "잠든다.". 어느 혹자의 진실한 본질에 잠드는 것은 모 든 자아의 진실로,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서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몹시 지친상태를 느끼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무겁 고, 탁하며, 둔한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 잠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 사임, 망각 및 무의식적 진행이다. 심지어 우리가 어제 본질적인 경험을 하였어도, 오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영혼 상에 어떠한 인상도 심어주지 않은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거나 혹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였든 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이고, 상황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에 의하여 알려진 영혼은 잠들어 있다. 이것은 계몽이 자각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각은 자신이 실체에 대한 경험을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발 생한다고 믿고 있다. 영혼의 일부는 깨우치고 있을 수 있으나, 영혼은 열등감이라는 자기중심적 감각에 의하여 깊게 각인되고 있고, 이런 영혼의 깊이는 손쉽게 혹은 신속하게 깨우쳐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자각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는 열등감이다.

잠들어 있는 영혼의 가장 분명한 징후는 관습적이고 일치된 현실 및 혹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확고한 확신이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심오 한 체험과 현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지에 관계없이, 명상을 위한 방식에서 일어나거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세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며, 처신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자신들 영혼의 평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해 오고 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실체의 본질과 영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경우이다. 현실은 우리의 여건을 통해서 여과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의 기반은 일치된 현실이다. 자기 중심적 관점이 상황이 정말로 어떠한 것이라는 점은 수피(Sufi)들이 사람이 잠 들어 있다고 말할 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단지 얄팍한 깊이의 보편적인 현실을 궁극적인 진실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현실인지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신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편 적인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진실 및 현실과 관련하여 영혼상의 나태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은 "본질에 대한 나태"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으름은 존재에 대하여 기울이는 관심이 지나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것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존재의 나태함이다. 만약에 가치 있고 좋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외부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분노와 슬픔을 이유로, 존재로부터 그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에니어그램 유형과 달리,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은 무관심, 체념, 나태함, 무기력증, 그리고 정체감으로 반응한다.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은 반드시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보편적인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본질적인 무엇 즉, 존재 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이러한 나태함은 이러한 에니어그램 유형의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아에 있어서는 사실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의 특성이다. 그 자신을 성격에 전념하도록 하는 영혼은 진실을 깨닫고, 영혼이 깨어있 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을 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도외시하고 나태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로 누구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상상해왔던 것보다 심지어 더 추하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고, 따라서 살펴보지 않은 것이 보다 좋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열등한 영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잠실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전부이다.

그러나 진실한 본질이 아주 아름답고, 진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어떤 희생도 그러한 아름다움, 광채, 윤기가 흐르는 소중함을 깨닫는 점에 있어서는 지나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신성한 사랑이 실체 안에 내재하는 본래의 더없이 행복한 선량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현실을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으로, 실체의 진심어린 특성, 심장으로서 현존의 체험을 만드는 것은 아름다움과 감탄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랑이란 어휘에 의하여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그것은 사랑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의 아름다움과 정말 마음에 드는 진귀함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관과 자아의 편견을 배제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내재해 있는 것은 감탄스럽고, 즐길 만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특징은 현실의 일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축축함이 물에 내재해 있는 속성인 것처럼, 그것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물로부터 축축함을 분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존재로부터 신성한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에니어그램 유형의 특유한 망상이 어떻게 열등감의 특유 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점이 잠들게 하고, 무의식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한 특정 반응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응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및 객관적인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기기억을 위해 깨어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연습의 이유이다.

싱글족의 갈등 극복

30대 중반의 대기업 과장이다.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다 순간 공포가 몰려와 중도하차 했다. 중요한 발표라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밀린 업무와 과로가 겹친 게 화근이었다. 시작 전 약간 불안했지만 과거 발표 때마다 잘 해서 별 일 없으려니 했는데, 큰 실수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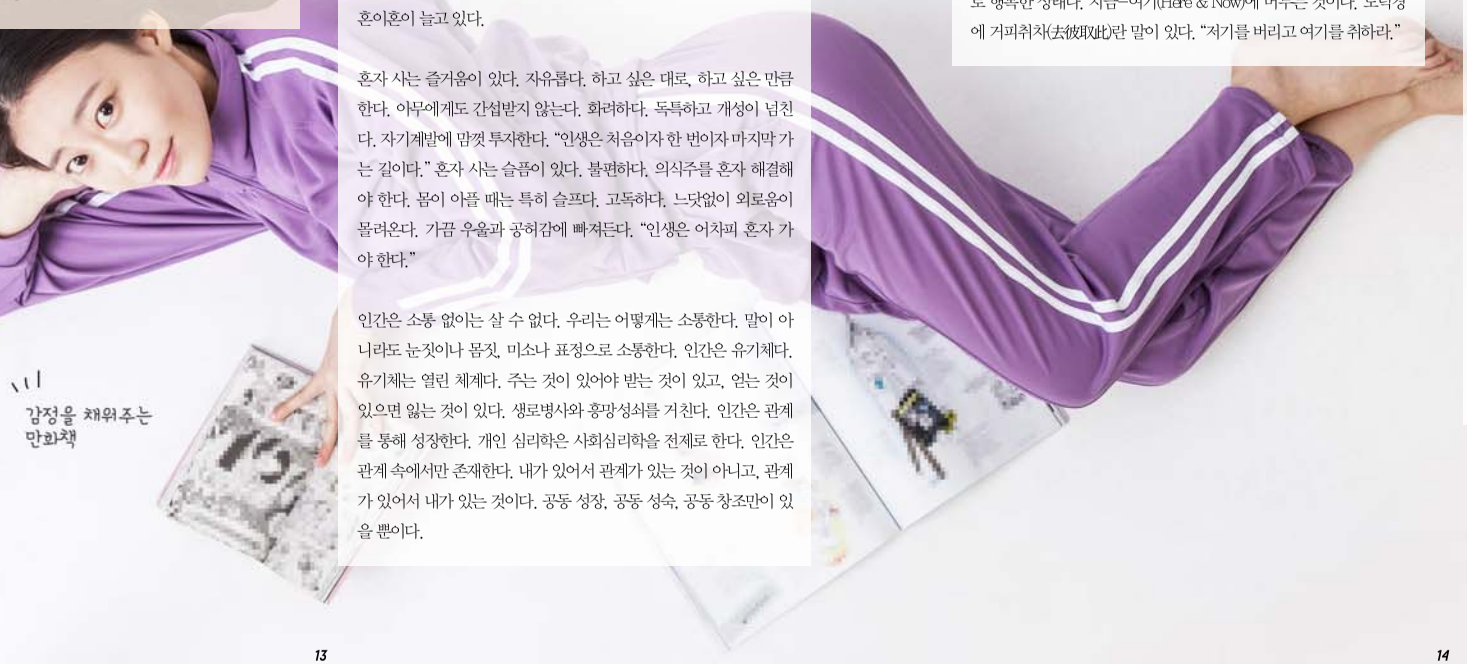
그날 이후, 그는 엉망이 되었다. '괜찮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는데 잘 안 된다. 작은 회의나 브리핑 계획에도 불안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든다. 꼼꼼히 준비해서 겨우 마무리하는데, 찜찜한 기분은 그대로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자꾸 생긴다.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모습, 비웃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 뒤에서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는다. 또 다시 발표할 일이 생기면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다. 더구나 남들 앞에 서는 상황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회식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조차 불편하게 다가온다. 남 앞에 서야 할 일이 적은 부서로 옮겨야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휴대폰은 나의 분신

싱글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줄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늘고 있다. ②경제적인 이유다. 취업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 힘든 육아환경으로 마지못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③이혼의 증가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혼인신고가 32만 건이고 이혼신고가 11만 건이다. 셋 중 하나가 헤어진다. 돌아온 싱글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이 있다. 자유롭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한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 화려하다. 독특하고 개성이 넘친다. 자기계발에 맘껏 투자한다.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이자 마지막 가는 길이다." 혼자 사는 슬픔이 있다. 불편하다. 의식주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때는 특히 슬프다. 고독하다. 느닷없이 외로움이 몰려온다. 가끔 우울과 공허감에 빠져든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야 한다."

인간은 소통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는 소통한다. 말이 아니라도 눈짓이나 몸짓, 미소나 표정으로 소통한다. 인간은 유기체다. 유기체는 열린 체계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생로병사와 흥망성쇠를 거친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개인 심리학은 사회심리학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내가 있어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공동 성장, 공동 성숙, 공동 창조만이 있을 뿐이다.



감정을 채워주는 만화책

싱글족을 위한 탁월한 조언은 무엇일까?

첫째, 자긍심(Pride)이다.
싱글족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긍정적인 시각이 대세다. 스스로를 긍정하자. 자긍심은 확고한 정체성에서 온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내가 좋다." 자긍심은 유쾌한 낙천성에서 온다. 어떤 일을 당해도 배울 점이 있다. 매일 이렇게 읊조리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긍심은 무한한 책임감에서 온다. 책임지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매일 이렇게 외쳐보자.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싱글족의 최고 고수는 고깃집에서 혼자 저녁 먹는 사람이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둘째, 몰입(Flow)이다.
싱글족은 누구보다 시간이 많다.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살아 있음에 흠뻑 빠져들자. 몰입 할 때 시간 가는 것을 잊고, 어디에 있는지도 잊는다. 몰입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큰일을 해냈는가?" 그는 대답했다. "평생 한 가지에 집중했다." 몰입은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다. 재미있고, 의미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투신하자. 몰입은 무아(無我)의 경지다. 나조차도 잊는 최고로 행복한 상태다. 지금-여기(Here & Now)에 머무는 것이다. 도덕경에 거피취차(去彼取此)란 말이 있다. "저기를 버리고 여기를 취하라."

셋째, 교류(Exchange)다.
싱글족은 혼자에 익숙하다. 인간에겐 교류가 필수적이다. 교류가 없는 인생은 죽은 나무토막과 같다. 관계를 위한 시간을 기획하자. 만나는 가운데 호기심이 생기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샘솟고, 돕는 가운데 에너지가 넘친다.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 머리로 소통하여 지혜를 얻고, 가슴으로 소통하여 용기를 얻고, 배로 소통하여 의지를 얻는다.

싱글족의 진정한 고수는 누구일까? 혼자 사는 듯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혼자 사는 듯이'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동시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이란 두 톱니바퀴가 이가 맞아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강에서 배와 배가 부딪치게 되면 시비가 붙기 마련이다. 그런데 상대가 빈 배였다면 아무런 싸움도 안 벌어진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빈 배로 지나라가."

한국형에니어그램 4기 전문강사 이후경 박사
정신과의사, 경영학박사, LPJ마음건강 대표
연세대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거쳐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과 중앙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임상집단정신치료〉,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시리즈 1~5권〉
〈후박사의 힐링시대프로젝트〉 등 10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돈의 9가지 영역

여정으로서의 돈 중편

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윤운성 역, 2015) 中 발췌

외적인 작업으로서의 돈

〈9개의 돈의 영역〉에서의 돈에 관한 연구는 물질적인 활동에 관한 분야이다. 물질적인 활동이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돈 같은 영역에서 행복하기 위해 물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업이다. 그 일은 과거의 습관적이며, 건강치 못한 패턴을 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잠재성 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외부적인 자신의 차원에 서 행하는 작업인 것이다. 대조적으로 내적인 작업은 우리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기 위하여,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제한된 신념을 스쳐 지나가 깨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있는 참된 자신을 연결하기 위하여 내면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작업의 여러 실행들이 우리의 본질 혹은 존재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반면에, 외적인 작업의 실행들은 풍요로움의 다양한 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적인 작업, 외적 인 작업 둘 다 우리가 얼마만큼 잠들어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된 잠재적인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실질 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고서는 내적으로 비틀려 있는 왜곡을 버리기가 불가능 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공함에 따라,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아 프로그래밍에 덜 의존하게 된다. 내적인 작업과 외적인 작업이 만약 함께 행해진다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도우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삶에 참여하는 것을 진실로 돕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돈에 대해 더 건강한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외적인 작업을 행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지지해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시스템으로서의 돈

돈!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1달러짜리 종이 지폐인가? 돈이란 물건인가? 돈은 좀 더 쉽게 상호거래를 허용하게 해주는 교환 중개 매개체이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물물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 부피가 커서 운송하기가 어려운 상품을 저장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폐와 동 전을 단순히 교환만 하면 된다. 만약 내가 호박 재배업자라면 내가 필요로 하 는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 큰 수레에 호박을 담고 운반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에 돈이라고 불리는 것에 호박을 팔아 지폐와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기 위해 돌아다닐 것이다. 돈은 역시 지금 혹은 나중에 가 치 있는 상품과 용역을 얻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가치 있는 저장품이기도 하 다. 매트리스 아래 돈뭉치를 넣어두었다면 10년이 지난 후 이 지폐들을 꺼내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돈은 교환 중개 수단으로써 그리고 가치 있는 저 장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드는 물건인 것이다. 그러나 돈 은 물건 이상이다—종이나 금속 그 이상인 것이다. 돈은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바다인 경제를 지원한다. 돈은 우리 삶의 섬유이며, 우리가 꿈꾸는 것, 동 기, 행위의 토대이다. 비록 돈이 물건으로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재빨리 훨씬 더 복잡하고 동적인 모르핀 같은 것으로 바뀐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돈과의 상호작용이야 말로 총체적으로 돈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 모두가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 총체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금을 바란다면, 우리는 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달러를 좀 더 빨리 써버린다면, 전반적인 가격이(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생산 적으로 일하게 되면, 물가에 있어 전반적인 상승을 무디게 할 것이다. 돈은 공공의 가치를 비추어준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무엇을 선호하며, 지출하며 투자하는가—이러한 것들이 물질화되며 성장하게 된 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시들어버릴 것이며 더 이상 커지지 못할 것이다. 만 약 우리가 총체적으로 공포와 결핍에 의해 자극받는다면, 교환의 시스템은 이러한 신념을 비추어줄 것이다. 경제학의 규범은 인간들이 본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는 사실을 관찰한 아담 스미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만약 모든 사람들 이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만 행동한다면 놀랍게도 자유방임주의야 말로 가장 최선책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공포심, 탐욕, 이기주의 그리고 결핍감이야 말로 부족한 자원들의 거래가 최선의 총체적인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개인적인 행위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만약 우리 각자가 돈에 대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계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경제의 전체적인 규범이 다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공포심, 이기주의, 그리고 결핍감이 시장시스템의 토대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허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힘든 작업을 해봤던 적이 없는 것이다.

돈의 구성요소

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 위한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을 갖기 위하 여 우리는 이 관계의 본질적인 면을 입증해야만 한다.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하 는 보편적 법칙의 상징으로서, 에니어그램은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에 관해 생 각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뼈대를 제공한다. 9개의 돈의 영역이라는 구 조의 틀로서, 우리는 돈의 성격을 시스템으로 말할 수 있으며,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부와 물질적 번영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9개의 돈의 영역 각자와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만약 이러한 9 개의 돈의 영역에 대한 관계가 건강하다면, 관습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부유하던지 아니던지 간에 우리는 풍요로움과 물질적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돈의 영역들을 무시하면서 어떤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돈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돈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부와 물질적 번영이 그저 은행에 있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의 형태임을 알 것이다. 9개의 돈의 영역은 돈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된 부와 번영은 우리의 세 가지 중심—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깨끗한 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존재의 집중되어진 상태—안에서 일렬로 세워지는 상태를 일컬음이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 상태는 가치기준이 키워지면서 의미 와 연결되는 것이며 머리의 중심에서는 그 상태는 청명함, 신뢰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것이고 몸통의 중심에서는 그 상태는 활력, 전체성 그리고 균형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장점들을 갖지 못할 때, 불가피하게 공포심과 결핍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부유하지 못하며 아울러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아래 그림의 9개의 돈의 영역의 도표를 재음미해볼 때, 1번 영역에서 시작해서 원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신의 반응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어떤 영역이 특히 당신에게 재미있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다른 영역들은 짜증나거나 불안해지는가? 이것은 매우 유익한 정보들인데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은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영역 에 관심이 계속 가게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왜 관심을 잃어버리며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가는가? 우리가 획일적으로 돈의 9개의 영역 각각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활동할 때, 우리는 공포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러한 공포심은 우리의 믿음, 주의력 그리고 행동을 왜곡되게 한다. 어떤 돈의 영역은 분명히 즐거워하고 더 능숙한 반면에 다른 돈의 영역은 반감과 서투름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 중 어떤 이는 예산 짜는 일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를 업신여긴다. 우리들 중 어떤 이는 돈을 벌고 부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다른 이들은 의미와 이해에 관심을 둔다. 이 9개의 돈의 영역은 우리가 강하고, 긍지심을 느끼며 약간은 집착하게 되는 좀 더 명확한 나의 관심분야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이 영역은 우리가 저항하며, 게을러지거나 혹은 노골적인 적개심을 갖는 분야를 확인하게끔 도와주기도 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운영토록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나머지 돈의 영역을 단순히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는 않다! 이 영역들 각자가 우리 자신의 성장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 가 각각의 영역에 실질적인 연결을 갖는 데에 실패한다면 원을 따라앞으로 나 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5번 영역은 구체적으로 3번 영역, 기타 등등을 따라 가는 4번 영역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린왕자
3편

어린왕자가 만난 사람들 : 불켜는 사람

어린왕자가 만난 인물 중 또 하나의 6번은 불켜는 사람이다.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충실한 사람들이다. 불켜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로등을 켜고 끄는 행위에 대해 열심이다. 또한 1분에 한번씩 바뀌는 별의 시간에 충실히 순응하며 살아간다.
어린왕자의 '왜 가로등 불을 켜고 끄셨나요?' 이 질문에 그는 '그건 명령이지'라고 답을 한다. '이해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나는 정말 힘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래도 이치에 맞았었지. 아침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켜는 일이었지.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잠을 잤었지.....명령은 달라진 것은 아니야. 그것은 비극이야! 별은 해마다 빨리 도는데 명령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린왕자가 만난 사람들 : 지리학자

우리는 다른 6번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많은 6번들이 삶의 확실함에 대해, 전통과 역사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도시, 강, 산, 바다, 대양이나 사막 따위를 세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탐험가가 오면 그를 서재로 맞아들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여행 중에 기억나는 것을 기록 해 두지. 그리고 탐험가가 기억해서 말한 것 중에서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거야. 만일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망이 될 테니까.....탐험가에게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큰 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산에서 큰 돌을 몇 개 가져오게 하는 거지...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만 기록하는 거야...'

불켜는 사람과 지리학자 모두 틀 속에 갇혀 살아가지만 6번들이 사람들 속에서 친근함으로 다가가듯이 어린왕자에게는 친근하게 그리고 어린왕자의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게 된다.

어린왕자가 만난 사람들 : 여우

여우 또한 6번을 상징한다. 6번들은 충성가이지만 이들 역시 사고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붙는 다른 하나의 수식어는 '회의적 충성가'이다. 자신의 머리 속으로 인정한 권위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여우는 '길들인다'라는 표현으로 어린왕자와 이야기 한다.

'그럼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면되지?'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요. 우선 당신은 나와 좀 떨어져서-바로 그렇게-풀밭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옆눈으로 바라보면 당신은 아무말도 하지 말이야 해요. 말이라는 건 오해의 근원이니까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당신은 조금씩 가까운 것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언제나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나는 언제부터 당신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적당한 관례를 지켜야만 해요.'
여우는 어린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내 비밀을 말해 주지요. 내 비밀은 별거 아니어요.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당신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당신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미에도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사고중심의 6번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나 자신과 타인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이다.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머리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믿음을 몸으로 책임질 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이루어진다.

울긋불긋 도심속에서 즐기는

도심의 가을정취

삼청동길

위치 동십자각~삼청터널
수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길이 1.5 km

경복궁 담장과 삼청동 화랑,공방 등이 어우러져 젊은 층과 관광객이 많이 걷은 거리로 노란 은행잎과 주변 느티나무 등 활엽수의 단풍을 볼 수 있음.

문의 : 02-2148-2862 (공원녹지과)

덕수궁길

위치 대한문~서울시립미술관
수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길이 0.87 km

보차 공존 일방 거리로 덕수궁 옛 돌담과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 화분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음.

문의 : 02-3396-5864 (공원녹지과)

동호로

위치 동국대입구~ 청계5가
수종 은행나무 길이 1.4 km

2열 식재 된 은행나무와 화단의 관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음.

문의 : 02-3396-5864 (공원녹지과)

이태원로

위치 삼각지역~녹사평역
수종 은행나무, 버드나무 길이 1 km

아름드리 버즘나무가 우거져 있어 낙엽 거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음.

문의 : 02-2199-7623 (공원녹지과)

망우산 사색의길

수종 왕벚나무,참나무 등 길이 5.2 km

망우산은 281m의 작은 산으로 오세창, 한용운, 방정환등 유명인사의 묘소가 있으며, 망우산 둘레로 5.2km의 산책로(사색의 길)가 조성되어 있고 약수터와 인접하고 있어 이용 시민이 많으며 산책로 주변에 참나무, 왕벚나무 등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운 산책로임.

문의 : 02-2094-2373 (공원녹지과)

매봉산

수종 목백합,단풍나무 길이 3.6 km

매봉산 자락길을 따라 걸으면 다양한 나무의 형형색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강, 월드컵공원, 상암동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문의 : 02-3153-9563 (공원녹지과)

노량진공원길

위치 무장애숲길
수종 참나무 길이 0.4 km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무장애숲길 주변 으로 신갈나무 등 참나무 군락이 자라고 있어 가을철에 더욱 운치있게 걸을 수 있음.

문의 : 02-820-9849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공원

수종 메타세콰이아 길이 1.5 km

메타세콰이어 군락내 낙엽이 쌓인 산책로를 걸으며 운치있는 분위기속에 단풍감상 가능

문의 : 02-2155-6893 (공원녹지과)

남은 음식 처리하기

추석 골칫거리 '명절 음식'

"전", 제대로 보관하고 데우기

전을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고 냄새가 나서 버리게 되므로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냉동 보관할 때도 열흘은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전은 기름기가 많아 데워 먹으면 수분이 증발되면서 맛이 텁텁해지기 쉬습니다. 상온에서 전을 해동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살짝 구워 키친타월 등으로 기름기를 빼서 먹어보세요.

"나물", 제대로 보관하기

나물은 반드시 따로따로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각각 맛을 잃지 않고 잘 상하지 않아요. 양념한 나물은 냉동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동했을 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랍니다. 각각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하면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고에서 꺼내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면 일주일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남은 음식 재활용 요리

추석 골칫거리 '명절 음식'

뜨끈한 국물 요리로 재탄생, "모둠 전 전골"

재료(3~4인분)

모둠 전 약 15개(400g), 양파 1/2개(100g),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쇠고기육수 5컵, 소금, 후춧가루 약간

만들기

양파는 1cm 폭으로 채 썰고 고추는 0.3cm 폭으로 어슷 썹니다. 전골냄비에 모둠 전과 채소를 돌려 담은 다음 육수를 전골냄비에 둘러가며 부어요.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끓여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여 3분간 끓입니다. 다시 중약 불로 줄여 뚜껑을 연 채 3분간 끓이면 완성.

아이들 인기 만점 간식, "생선전 버거"

재료(3~4인분)

생선전 4개, 모닝빵 4개, 양상추 2장, 시판 스프레드 샐러드(취향에 따라 변경)

만들기

모닝빵은 반으로 썰어요. 약한 불로 달군 팬에 모닝빵을 올려 1분간 구워 접시에 덜어둡니다. 그 팬에 생선전을 올려 기름을 두르지 않고 따뜻하게 데웁니다. 모닝빵에 시판 스프레드 샐러드를 바르고 양상추를 올려요. 그 위에 다시 소스를 바른 뒤 생선전을 올리고 빵을 덮으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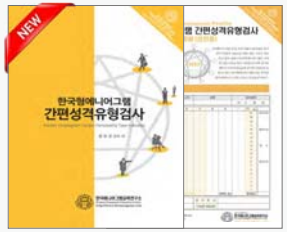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구



KESPTI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KEP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KEPTI-J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청소년용

KESPTI-CLS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 및 학습유형검사

KEPTI-C
한국형에니어그램 아동용 성격유형검사

KEPTI-Y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아동·청소년용

KEPS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하위유형검사

위 검사지는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이상 수강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Korean Enneagram Education Cente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TEL. 02)3446-3165 FAX. 02)515-6784 Email. help@keneagram.com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 페이스북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도서

더 많은 도서 확인하러 가기!

• 푸드아트테라피

•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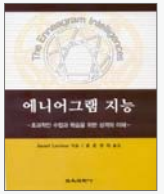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 실제 가이드

• 에니어그램 명상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 에니어그램으로 본 다문화세상

•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9가지 성격



• 에니어그램 지능

• 에니어그램 2

• 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 에니어그램을 통한 지혜리더십

• 에니어그램의 깨달음

• 집단지능과 번영을 위한 9가지 설계원리

• 핵심에니어그램 가이드

• 에니어그램 정복

•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 필수 에니어그램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 방과후학교 박람회

일시 2016.09.22(목) ~ 25(일)
장소 부산벡스코 제2전시장 5홀
행사소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유 · 초 ·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 · 대학 등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0회 무주반딧불 축제

기간 2016.08.27 ~ 2016.09.04
장소 무주군 일원(마을로가는축제장, 축제주제관(예체문화관), 전통공예문화촌, 지남공원, 남대천, 반디랜드 등)
행사소개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돼 있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가 소재인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자연을 즐기는 환경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한다. 올해 주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며, 주요행사로는 환경,곤충 체험행사, 문화,예술,놀이 행사, 민속체험, 먹거리 행사, 연계,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

일시 2016.08.15 ~ 2016.10.16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일대
입장료 30,000원
행사소개 창덕궁에서는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2016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일환으로 특별한 시간대에 궁궐에서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밤 8시에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으로 들어가서 인정전,낙선재 후원을 돌아 나오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개봉예정일 2016.09
감독 김지운
출연 송강호, 공유,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도서 소개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II –인관간계를 중심으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많은 인간관계의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접근하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유형을 중심으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읽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시리즈
정신과 의사, 경영학 박사,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 정리한 인간관계학, 자기계발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와이 엠 아이?
자기이해 : 나의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정체성에 관한 강연
2. 힐링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토탈힐링에 관한 강연
3. 관계 방정식
인간관계의 해법 : 나사랑, 님사랑, 남사랑에 이르는 길에 관한 강연
4. 변화의 신
변화와 혁신 : 내 안에 잠든 신(神)을 깨우기에 관한 강연
5. 선택의 함정
행동경제학 : 무엇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인가에 관한 강연

한국형에니어그램 가족상담 과정

2016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서울교육장에서 김명수, 류정자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가족상담 과정을 진행하였다. 가족상담과정은 가족의 문제와 위기들을 에니어그램의 지혜를 이용하여 풀어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 여행

2016년 8월 8일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 서울분원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 여행 3회기를 진행하였다. 본 교육에서는 영화 '동주'를 보고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해 인물의 감정, 행동 등을 탐색하여 유형별 행동방식, 의식수준에 대한 탐구 및 토론을 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

2016년 8월 6일~7일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지미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 과정은 에니어그램 안에서 코치이와 코치가 파트너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신성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에니어그램 성격연구회

2016년 8월 10, 23일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 서울분원에서 박현경 소장의 지도 하에 에니어그램 성격연구회 7회기를 진행하였다. 7회기 모임에서는 아들러 이론의 주요개념과 성격평가기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으며, 참여자마다 발제와 나눔을 통해 에니어그램에 대한 지식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GYEONGGI-DO PEACE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2016년 8월 12일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서 지미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교사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스스로의 유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진로상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검정선 전임교수 간호학 박사 학위 취득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전임교수이자 춘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선 전임교수는 지난 8월 19일 한양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간호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김정선 박사님의 에니어그램과 간호학 현장에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학 술 대 회 개 요

1) **일시 :** 2016.11.19 (토)

2) **장소 :** 화신사이버대학교

3) **주제 :** 에니어그램과 인성계발

학 술 대 회 발 표 논 문 모 집

1) **논문발표 신청마감 :** 9월 20일(화)

– 성명, 소속, 이메일, 논문제목, 연락처 명기

2) **발표논문원고 마감일(학회논문게제양식):** 10월 20일(목)

– 제출처: 한국에니어그램학회 사무국
– 제출방법: E-mail 또는전화
enneagramks@hanmail.net / 02-3446-3165

학 회 모 집

누구든지 에니어그램에 관심을 가진 자는 한국에니어그램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학회 자료실의 가입원서를 다운받아 메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02-3446-3165, enneagramks@hanmail.net, fax: 02-515-6784

학 회 비 및 이 사 회 비 납 부

원활한 학회의 운영을 위해 학회 회비와 이사님들은 이사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원 :가입비 10,000원, 연회비 20,000 원 (기존 가입 회원께서는 2016년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회비 20,000원 + 상임이사회비 100,000원 = 120,000원

* 평생회비: 500,000 원(연회비, 연차대회비면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30-7627-73	사)성심인성연구원 한국에니어그램학회

기 타 문 의

한국에니어그램학회 사무국
TEL. 02-3446-3165
E-mail. enneagramks@hanmail.net

이후 일정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kenneagram.com

09
OCTOBER 2016

SUN	MON	THE	WED	THU	FRI	SAT
28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임란 전임교수	29	30	31	1	2 * 솔리언또래상담지도사 10:00–17:00 / 서울교육장 김정선 전임교수	3 * 전문강사훈련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 자기주도학습 10:00–18: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4 * 자기주도학습 10:00–18: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5	6	7 *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완희 전임교수	8	9 * 솔리언또래상담지도사 10:00–17:00 / 서울교육장 김정선 전임교수 * 광주통합과정 09:00–19:00 / 광주교육장 윤천성 전임교수	10 * 광주통합과정 09:00–19:00 / 광주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11 * 도구워크샵 10:00–17:00 / 서울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 * 광주통합과정 09:00–19:00 / 광주교육장 황임란 전임교수	12	13	추석 14	추석 15	추석 16	17
18	19	20	21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노수진 전임교수	22	23 * 교육기부박람회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24 * 교육기부박람회 *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윤여진 전임교수 * 부산검사지 14:00–17:00 / 부산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25 * 교육기부박람회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김정희 전임교수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26	27	28 * 3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29	30 * 인천통합과정 09:00–19:00 / 인천교육장 김정희 전임교수	1 * 인천통합과정 09:00–19:00 / 인천교육장 조선화 전임교수

본 지에 나온 내용의 문단전제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39호
2016년 8월 25일~2016년 9월 24일
편집기획 및 디자인 : 류재현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편집위원 : 김새한별, 안신영, 윤완진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형에니어그램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